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3호 【루계 제26177호】 주제 107 (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김용수동지, 국무위원회 부장 김창선동지, 국무위원회 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현지에서 내각부총리 동정호동지, 건설경제공업상 박훈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영환동지,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위원장 리상원동지, 삼지연군위원회 위원장 양명철동지들 비롯한 건설지휘부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우리 혁명의 고향군, 백두산아래 첫동네인 삼지연군을 세상에 몰도 없는 인민의 리상향으로 전변시키

실 웅대한 구상을 안으시고 몸소 설계가,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어 레년에 없는 폭염과 열풍속에 올해에만도 두차례나 군을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다시 삼지연군건설정형을 료해하시고 전체 건설자들을 1단계 공사 결속을 위한 보다 큰 위훈창조로 불려일으키시기 위하여 찬눈을 맞으시며 조국의 북변 삼지연군을 세번째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 읍지구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읍지구에서 새로 일떠선 살림집들과 봉사시설들, 공공건물들을 돌아보시면서 지난 8월에 와보았을 때 골조공사가 한창이었는데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대부분 완공단계에 들어섰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삼지연군이 우리 당이 바라는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황홀한 지태를 드러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완공된 살림집에 들리시어 살림방과 부엌, 세면장을 비롯한 살림집의 구성구석을 돌아보시면서 시공을 손색없이 잘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건설에 참가한 전체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이 북방의 불리한 자연지리적조건에서도 불굴의 정신력과 드센 공격전으로 날마다 미약의 폭풍을 일어나가며 백두산 천지주변의 건설대상들과 읍지구의 공

공 및 산업건물, 살림집 건설, 도로공사를 비롯하여 올해 계획된 건설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삼지연군건설실태와 자재, 로력보장실태, 물자수송실태를 료해하시고 공사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고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금 내각과 삼지연군건설지휘부에서 삼지연군안의 모든 대상건설을 2021년까지 4단계로 나누어 진행

하는것으로 계획하고있는데 당의 의도와는 다르다고, 당에서는 건설을 3단계로 나누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기간안에 끝낼것을 구상하고 바라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 창건 75돐을 맞는 2020년 10월까지 삼지연군총 건설계획을 앞당겨 끝내는것으로 다시 계획을 짜고 무조건 완수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020년까지 삼지연군건설을 끝내는 데서 다음해가 관건적의 의의가 있다고 하시면서 읍지구건설은 매년도까지 완전무결하게 완공하며 기타 대상공사들을 다그치기 위한 공정별, 순차별, 단계별, 년차별목표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설정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건설 2단계인 다음해 공사계획을 명확히 규정하고 시공단위들에 공사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분담하는 사업으로 부터 시작하여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 로력보장, 수송대책을 따라세우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모든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갖추고 매년에도 올해와 같은 기세로 넓다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 맞게 설계를 선행시켜 보장하며 건설에 필요한 설비, 자재, 마감건재보장을 맡은 모든 단위들에서 증산돌격투쟁을 힘있게 벌려 계획량을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세멘트공장들에서 생산량을 늘여 계획된 세멘트를 무조건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와 함께 건설장 그 어디서나 한은의 세멘트, 한포각의 나무, 한개의 붓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최대한의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인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지고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에 떠받들려 나라의 한끝까지 와닿는 귀중한 물자와 설비, 자재와 자금이 조금도 허실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삼지연군이 현대적으로 건설되는데 맞게 전력생산대책을 따라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해당 부문에서 삼지연군 중소형발전소들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해주며 군에서 발전소관리운영을 짜고들어 발전설비들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려 전기를 능력대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3 번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 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매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것이지만 언제나 무조건 해야 한다는 조급성에 사로잡혀 절대로 속도일면에만 지중하면 안된다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특이 건설사업을 보여주기식, 캄빠니아식으로 걸치레나 하고 실속없이 하면 인민들과 후대들로부터 두고두고 욕을 먹게 된다고 하시면서 **축 한삼을 떠올리고 한평방을 미장해** 자기 집처럼 생각하고 주인답게 랑심적으로 간지게 하여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건축물들을 로동당시대의 기범비적창조물로, 만년대계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감독부에서 건설공법의 요구대로 시공지도를 짜고보고 보이지 않는 구석까지 구체적으로 감독통제하면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시취부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자주 조직하여 건설장의 분위기를 앙양시키며 맹렬한 집단적 경쟁열풍속에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는것과 함께 일부 단위들에서 시공과정에 나타난 결함들을 모은 시공단위들에 즉시 통보해주고 제때에 각성시키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자가루가 대대적으로 생산되는데 맞게 인민들에게 감자가루의 우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감자가루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널리 소개선전하여 식생활에 적극 받아들여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 7월에 삼지연군에 와서 당의 감자농사 혁명방침 제시 20년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땅에 감자산을 높이 쌓아놓고 충정의 보고를 올리자고 하였는데 군에서 그 과업을 집행했다고 거듭

삼지연군인민병원과 삼지연군과학기술도서관, 추가되는 호텔들을 훌륭하게 잘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필요한 건설력량을 추가로 편성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들죽단무와 단무, 들죽술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들죽음료와 가공품들을 생산하게 되는 삼지연들죽음료공장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짧은 기간에 건설이 많이 진척되었다고 하시며 연말까지 공장을 완공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금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과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삼지연군꾸리기를 물질량면으로 지원하는 기특한 소행들이 높이 발양되고있는데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전담적, 전국가적

으로 애국충정의 한마음을 안고 삼지연군건설을 성실성의것도 와주기 위한 사회적분위기를 계속 고조시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날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2만t능력의 감자저장고안에 빈자리물 찾아볼수 없도록 무득히 쌓여있는 감자산을 보시고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신듯 기뻐하시면서 삼지연군에서 올해 폐년에 없는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감자농사에서 높은 수확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감자저장고의 온습도와 이산화탄소함량을 자동적으로 측정하고 조절하는 자동조종체계에 대하여

서도 알아보시고 가열, 통풍, 습도를 보장할수 있는 가습장치, 콘베아설비들의 능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감자입고와 보관, 저장고관리를 과학적으로,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엄격하게 진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의 기후풍토에 맞는 과학농법을 연구도입하여 앞으로 감자농사에서 더 높은 성과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토지개량사업을 근기있게 내밀고 많은 물거품을 생산하며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현대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우량품종의 종자를 육종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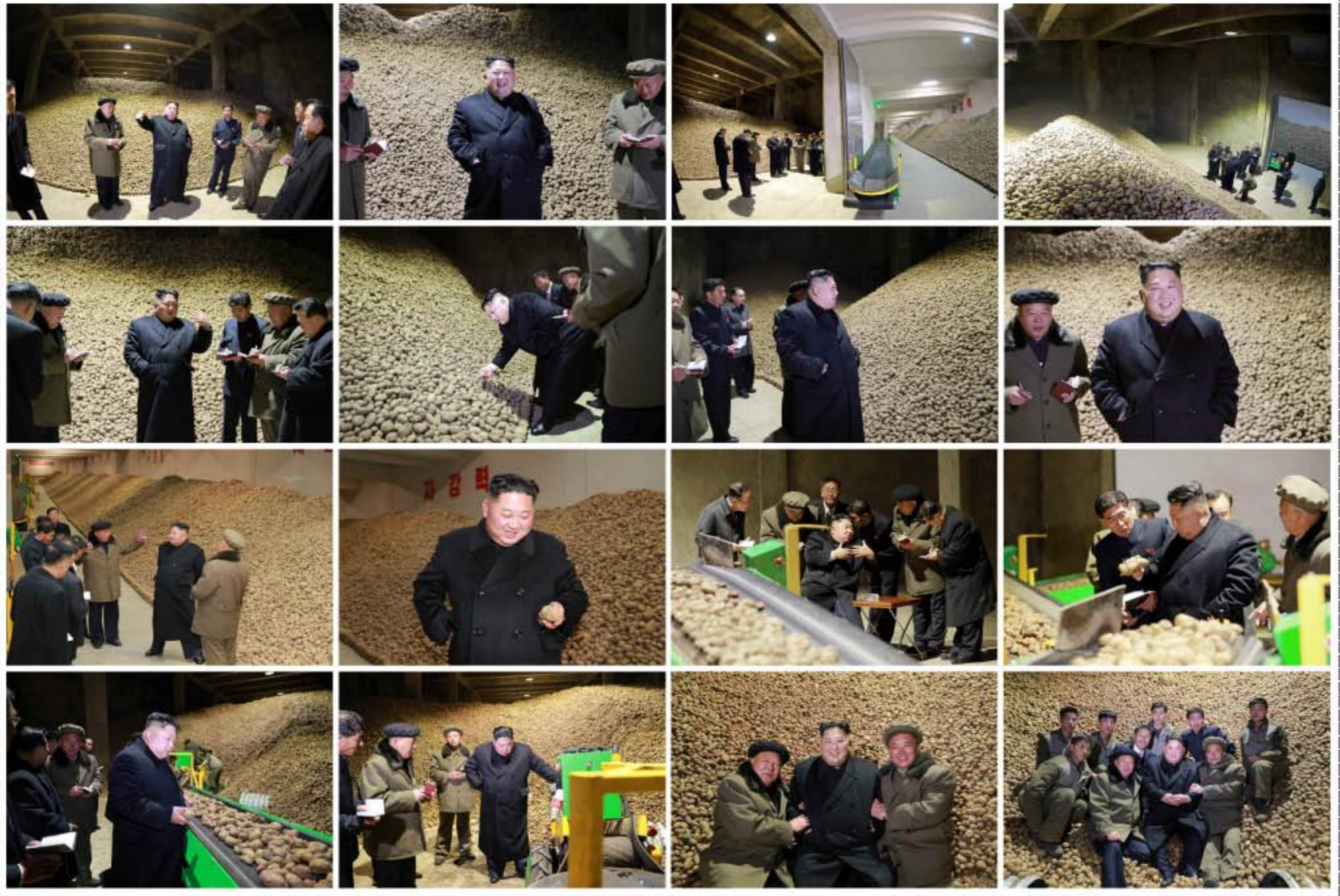
높이 지하하시면서 도와 군의 책임일군들, 삼지연감자가루생산공장 일군들과 함께 감자무지에 스템없이 앉으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삼지연군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전체 건설자들은 나라의 천만중대사를 돌보시는 것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삼지연군건설사업을 그토록 중시하시면서 맹만 추위속에서 공사현장을 오래도록 돌아보시며 방향과 방도를 휘황히 밝혀주시고 뜨거운 열과 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흠모의 정으로 끓어오르는 걱정을 금치 못하면서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삼지연군이 현대문명의 별천지로 빛을 뿌릴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올 철석같은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일군들이 지녀야 할 인생관

지금 우리앞에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회의의 결정사항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밀려나가야 할 무궁하고도 중대한 투쟁과업이 나르고있다. 전진도상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여있다. 오늘의 총진군의 성과여부는 당의 책임력량이 혁명의 지휘봉을 맡고 있는 일군들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일군들이 당의 새로운 전략적요구에서 기민하게 적응을 훌륭히 수행해나간다면 첫째도 둘째도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생활화, 인생관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해서는 한 몸이 멸사복무의 모래알이 되어 곱우에 뿌려진다고 하여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합니다.》

인생관은 인간의 삶에 대한 관점과 입장이다.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 값은 삶으로 빛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일군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일군들이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멋있게, 보람있게 사는 길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혁명적인생관을 깊이 간직하고 살며 일하는데 있다.

멸사복무란 말 그대로 자신을 쟁그리 바쳐 버리는 뜻으로서 최고인생관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 여기에는 일군들이 인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온몸과 목숨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높은 의욕이 담겨 있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 그것은 남보다 미더는 더 싸야 하고 잠은 덜 자야 하며 고통을 많이 견뎌야 하고 힘든 일에는 앞장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혁명의 력사와 현실은 인민의 행복과 미래를 위하여 자신을 쟁그

리 바쳐 사람들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일군들이 자기의 근본을 지키는 길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는것이 자기의 근본이며 죽어도 배고 죽어야 할것이 향심과 의리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군들은 누구나 다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이다. 자기들 낳아먹은 부모이고 형제이며 혁명적정신인 인민을 언제나 존대하고 인민들에게 멸사복무하는것은 일군의 신성한 도덕적의무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늘 교시하시며와 같이 우리 인민은 위대한이라는 말과 함께 불려야 하는 가장 훌륭한 좋은 인민이다. 우리 인민처럼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순박하고 성실하며 무비의 영웅성과 불가능을 모르는 창조력을 지닌 인민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커다란 영광이며 긍지이다.

만일 일군들이 순간이라도 당과 국가의 지도관부가 될것을 마치라고만 생각한다면, 자기가 특수한 인제가 되어서 그렇게 될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러면 잘못된것은 없을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커다란 영광이며 긍지이다. 당은 일군들을 키워주고 지금도 보살피고있으며 앞으로 일군들이 혁명을 위하여 멸사복무하기를 위하여 건전히 투쟁할것을 바라고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자기의 존재방식으로 하는 혁명적정신이 일군들은 성숙하며 당이 앞장서서 인민을 위하여 희생할것을 명약한 당원들이다. 일군들은 지위가 높이지고 미려해 질수록 내리막길도 좁고 당기앞에서 입당신청을 다지던 신입당원의 자세를 먼저 말아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을 사업과 생활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은 조선로동당에 의하여 육성된 인민의 총부이며 인민의 선봉수사라는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당의 뜻에 끝까지 충실하기 위해 애쓰는 일군이 혁명의 참된 지휘관이다. 오직 그렇게 하여야만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 일군의 지위를 얻어준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보답할수 있으며 대중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수 있다.

일군들에게 있어서 평도사의 신임 속에 살고 추락하여 영생하는것보다 더 큰 명예, 행복한 삶은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제일종지, 참된 충심으로 삶을 빛내이는 길은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사랑의 최고표현이시며 인정을 가장 사랑하시는 인민의 위대한 복부자이다.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정신은 자신의 불도 없는 인생관이며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불려받은 유산중의 유산이라고 할수 있는것이 우리 원수님이다. 우리 후손들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치열한 고생과 시련을 다시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시려고 위험천만한 전초선봉에 서슴없이 헌신을 내세우고 불면불욕의 특열정신, 열악한환경을 이겨낸 위대한 어머니의 결사의 애민정신의 세계를 눈물없는 새겨안을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 제일 기쁨 때는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실 때이고 제일 반가운 때는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려우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일군들이 만났을 때이다. 오늘 우리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을 같이하고 한걸음 가는 충실한 동지, 참된 충신이 되자면 미망히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할 인민의 총부자가 되어야 한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우리의 입심단결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본업일제의 위력, 정치사상적위력은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이며 사회주의진실의 위대한 추동력이다.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으로 일체화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 일군의 지위를 얻어준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보답할수 있으며 대중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수 있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끈질긴 세계공세를 노려 남녘로소가 자기 평도사를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는 입심단결을 허물고 우리 공화국의 전진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다물이 미끄러져 바라는 방향에 불과하다. 애로와 난관이 겹쌓이고 투쟁이 강고할수록 우리 인민은 통일하는것이 아니라 멸사복무정신은 자신의 불도 없는 인생관이며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불려받은 유산중의 유산이라고 할수 있는것이 우리 원수님이다. 우리 후손들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치열한 고생과 시련을 다시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시려고 위험천만한 전초선봉에 서슴없이 헌신을 내세우고 불면불욕의 특열정신, 열악한환경을 이겨낸 위대한 어머니의 결사의 애민정신의 세계를 눈물없는 새겨안을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 제일 기쁨 때는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실 때이고 제일 반가운 때는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려우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일군들이 만났을 때이다. 오늘 우리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을 같이하고 한걸음 가는 충실한 동지, 참된 충신이 되자면 미망히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할 인민의 총부자가 되어야 한다.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우리의 입심단결을 굳건히 지키고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본업일제의 위력, 정치사상적위력은 우리 국가의 제일국력이며 사회주의진실의 위대한 추동력이다. 온 사회가 하나의 사상으로 일체화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 일군의 지위를 얻어준 당의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보답할수 있으며 대중의 지지와 존경을 받을수 있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끈질긴 세계공세를 노려 남녘로소가 자기 평도사를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는 입심단결을 허물고 우리 공화국의 전진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다물이 미끄러져 바라는 방향에 불과하다. 애로와 난관이 겹쌓이고 투쟁이 강고할수록 우리 인민은 통일하는것이 아니라 멸사복무정신은 자신의 불도 없는 인생관이며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불려받은 유산중의 유산이라고 할수 있는것이 우리 원수님이다. 우리 후손들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치열한 고생과 시련을 다시는 것보다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시려고 위험천만한 전초선봉에 서슴없이 헌신을 내세우고 불면불욕의 특열정신, 열악한환경을 이겨낸 위대한 어머니의 결사의 애민정신의 세계를 눈물없는 새겨안을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 제일 기쁨 때는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하였다는 보고를 받실 때이고 제일 반가운 때는 우리라는 호칭으로 불려우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일군들이 만났을 때이다. 오늘 우리 일군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뜻을 같이하고 한걸음 가는 충실한 동지, 참된 충신이 되자면 미망히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관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간직할 인민의 총부자가 되어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생활문제를 천 만가지 국사가운데서 제일국사로 내세우고있습니다.》

당의 은정이 그 어디에나 특별히 어려웠던 투쟁선에 찾아와 행복의 웃음꽃을 피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뜻 잊을 추억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적셔준다.

우리 투쟁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별히 관심하시던 동성대상주의 하나였다.

동성대상주의에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봉사를 하려는 한사람이 있었을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인민을 위한 봉사를 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투쟁선이 특별히 관심하시던 동성대상주의 하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애기고 사랑하신 우리 인민을 행복의 상상봉에 높이 세워주시고싶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나 천지에 나오셔서 높은 문제가 있을새라, 미혼한 점이 있을새라 세심히 마음쓰시였다.

지금도 그 나눔들이 어찌런듯 날에 삼삼히 인제온다.

진실이 한창이던 6년전 봉남 투쟁선건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곳곳을 돌아보시던 시 이만하면 잘될것 같다고 하시던 마지막에 보이며 잘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평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건설물은 내용이 기본인 것만큼 질을 높이는데 힘을 넣으라고 강요하시였다.

그로부터 불과 두달후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서도 또다시 한공단계에 이른 투쟁선을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경도에서 해설을 들은 때가 몇 그새같은데 그사이 플라보게 달라졌다고 못내 탄복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무엇인가 미혼한 점이 있으면서 유식함과 미안함, 부족함을 돌아보시며 모든 비결들과 실미

를 인민들에게 더 잘 봉사할수 있게 훌륭히 갖추게 대하여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한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완공되는 날까지 입을 잘하여야 한다고, 우리 당이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선물인 투쟁선을 손색없이 꾸미 투쟁선이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불평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되게 하여야 한다고 질질히 당부하시였다.

그때 가을 또다시 준공을 앞둔 우리 투쟁선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곳을 돌아보시며 이곳을 찾는 인민들이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새라 다스린 한 인민을 위한 봉사를 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투쟁선이 특별히 관심하시던 동성대상주의 하나였다.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애기고 사랑하신 우리 인민을 행복의 상상봉에 높이 세워주시고싶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여러차례나 천지에 나오셔서 높은 문제가 있을새라, 미혼한 점이 있을새라 세심히 마음쓰시였다.

지금도 그 나눔들이 어찌런듯 날에 삼삼히 인제온다.

진실이 한창이던 6년전 봉남 투쟁선건설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곳곳을 돌아보시던 시 이만하면 잘될것 같다고 하시던 마지막에 보이며 잘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평가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건설물은 내용이 기본인 것만큼 질을 높이는데 힘을 넣으라고 강요하시였다.

그로부터 불과 두달후 삼복철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서도 또다시 한공단계에 이른 투쟁선을 찾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경도에서 해설을 들은 때가 몇 그새같은데 그사이 플라보게 달라졌다고 못내 탄복하시였다.

그러시고도 무엇인가 미혼한 점이 있으면서 유식함과 미안함, 부족함을 돌아보시며 모든 비결들과 실미

영광의 그날을 생각할 때면

지금 우리 투쟁선으로는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원한 한 봉사를 받고 한걸음씩은 나아간 한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처럼 무한한 인민은 이 세상에 없다고.

류경원 초급당원장 김명숙

장 임 향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온 세상에 빛을 뿌리는 위대한 당

오늘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그 힘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고 있으며 사회주의위업과 인민주주의위업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이 백사의 시련을 파고려 이겨내며 백전백승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권총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자 있었기 때문이다.

하기에 세계 수많은 인사들과 단결하는 조선로동당을 주체혁명의 혁명적당으로, 혼연높은 불멸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격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탄마르크스주의의 인민공화국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지금으로부터 73년 전 위대한 김일성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항도적방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어 위대한 당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김일성주체의 탁월한 영도 밑에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전위 역할을 지어내고 강위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께서 의거한 대승 강화발전되었다.

김일성주체사상과 김일성동지께서 정제하신 불멸의 당건설업적은 김정은동지께서 계승하여 계승하신 것이다.

『김일성주체사상은 하나의 로선과 정책을 확실히 세우고, 광범한 근로대중의 지향과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나라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인

민을 위한 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도록 하였다.』

그의 천명한 영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혁명의 강위적인 참모부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서 세인을 놀라게 하는 변혁을 이룩해나갈 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의 당건설업적은 김이 빛났었다.

『김일성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항도적방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어 위대한 당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세계 여러 나라 출신보도원들도 우리 당건설과 강화발전에 앞장서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우리 당을 존경하고 증진하는 위대한 영도자 강화발전시키시었다. 그의 영도 밑에 비상한 강화발전된 조선로동당은 오는 혁명의 강위적인 참모부로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에서 세인을 놀라게 하는 위대한 당을 창건하시어 위대한 당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김일성주체사상은 조선로동당을 명실상부 그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체의 영도 밑에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실천하시었다.』

김일성주체사상은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어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하는 당으로, 선군혁명업적을 향도해나가는 강력한 정치력력으로 건설하시었다.

이런 당이 언제나 불멸이 마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다.』

신문 《남안바》는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그 창건자이신 김일성주체의 혁명활동력사,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드림없이 계승하신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력사라고 하면서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앞장서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였다.

신문은 계속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조선로동당은 영웅스러운 김일성,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높은 권위와 명도력을 지니고 사회주의건설을 영웅적인 한걸음 향도하고 있다.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당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이만인 일나를 신, 인도네시아의 인더데신문 《프롱트》에 소개하는 최영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수령님들의 신적인 새로운 장을 펼쳐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적사건 영적인 호프에 하였으며 우리 당을 사상의 힘, 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강철의 전위대로, 인민대중의 위업을 높이고 인민을 위해 열사투쟁하는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신데 대해 전하였다.

세계정치를 주도해나가는 정예하는 최영명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생활을 모시고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을 전수하고 인민을 위해 열사투쟁하는 지도자상으로 삼고있는 당이며 전당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 당,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당이다.』

조선인민이 로동당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당과 함께 운명을 같이할 신념과 의지에 넘쳐 있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당이 언제나 불멸이

영광과 행복의 날

단란한 분위기를 펼쳐주시었다.

자애로운 어머니를 한자리에 모시고 조국과 흥년의 한식술들이 스스럼없이 어우러진 장내는 평안과 웃음, 노래와 춤으로 흥겨웠다. 풍류를 나누는 행복에 겨운 나머지 한 시간이 모자라 안락과 화사하면서 자기들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주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그 응시깊은 정을 미처 다 헤아

네 번이나 자신의 고향에

주제 85(1996)년 1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당시) 대표대회에 참가하였던 제1본부조선청년동맹(조선)측하던 성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촬영을 하게 되었다.

촬영이 끝난 후 조영일군들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발걸음을 옮기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본독 측하던

다심한 어머니의 정

어느 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흥년일군들을 만나주시어 자리에서 몇날부터 우리 조선사람들은 본가집에 갈 때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갔다고 하시면서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이 조국에 오는 것을 말하자면 본가집에 오는 것과 같다고, 다 음내 심해하시면서 우리는 흥년일군들의 얼굴에 따뜻한 봄빛이 드리웠다고, 그

영도자의 두리에 인민이 뭉친 조선의 힘은 강대하다

단결의 위력으로 단란을 즐기고 나그네 거장한 세계적번혁을 안아오는 혼연높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찬탄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것은 조선인민들의 원선 및 원선적 아랍지역위원의 공동위원장 아랍어 자카리아 헤이볼라 의 우리 나라 방문기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조선이 공화국창건 70년을 국제적인 승인으로 성취해 경축하였다. 각국의 정부, 정당, 단체 대표단 및 대표단이 행사에 참가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내빈 수많은 외국인들은 비록 피부색과 언어는 서로 달랐지만 조선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체제를 반대하는 인도주의적감정으로 응징되어 있었다.

수도 평양은 아름답게 단장되고 거머들리는 장군님들을 지향하는 수로들이 나왔다.

조선에는 김일성주체사상과 김일성동지의 영상이 흐르는

그 어떤 제재도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년 경축행사에 참가하러 온 알베르 로씨야연방평의회 의장이 강호한 발언을 하였다.

알베르 로씨는 그 어떤 제재에서도 조선이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대조선제재철폐 포락우려

『대부분이 주당인 사법총력세력을 비호하는 보수패당』

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려면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법총력사관관련 특별 재판부의 설치에 방대법정이 법원 불합적인 사법총력사건의

『사이비언론에 대한 수사를 요구』

다란 사회적폭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연선시민연합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하여 『조선인민』에 언론본인의 억압을 떠나 권력관료의 강력한 사실이 공개될것은 이면이 치욕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법원

지역기구인사의 조선방분기

곳마다에 정중히 모셔졌다.

이 나라의 모습은 오직 인민의 노력으로써만 무장조국이 건설된다는 진리를 깊이 새겨져 있었다.

지금 조선은 경제건설과 교육,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힘을 날리고 있다.

원서는 주체사상에서 비롯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년 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를 통해 느낀 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원병식에 참가한 군인들은 질서있게 행진하면서 김정은원수께 경의를 드렸다. 그들이 바로 일당백 조선인민군 군인들이다.

김정은원수께서는 군인들에게 공자로 격찬하는 미소를 보내시며 말했다.

조선에서 군사부부는 커다란 영예로 간주되고 있다. 어느 가정이나 군사부부는 있는 자식들이 있다. 김정은원수께서는 군중시위참가자들에게 인사를 보내시어 자기 영도자를 우러러 리치는

사법총력세력을 비호하는 보수패당

『대부분이 주당인 사법총력세력을 비호하는 보수패당』

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려면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사법총력사관관련 특별 재판부의 설치에 방대법정이 법원 불합적인 사법총력사건의

사이비언론에 대한 수사를 요구

다란 사회적폭력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연선시민연합은 지난 24일 논평을 통하여 『조선인민』에 언론본인의 억압을 떠나 권력관료의 강력한 사실이 공개될것은 이면이 치욕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법원

속근평주석 군강화에서 나서는 문제 언급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25일 남부전선의 한 지휘소를 찾아 군강화에서 나서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평화적인 분위기를 잃어버리고 모든 정력을 싸움준비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나프리카리칸대 미국에 반구바생해제를 요구』

남아프리카리칸대공화국 대통령 데비지는 25일 무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제할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미국이 곧 60년간 구바

『이란 수리아에서의 미군철수를 요구』

유엔주재 이란대사가 최근 미군이 수리아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리아반생의 정치적해결을 위한 회의가 위한 지역적인 노력을 강화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그는 미군이 수리아

나토 대규모군사연습 개시

나토가 25일 도브레에서 군사연습을 개시하였다.

11월 7일까지 진행되는 연습에는 전체 나토성원국을 포함하여 31개의 나라가 참가하며 5만명의 군인과 약 250대

세계적범위에서 활기를 띠고있는 관광업

도와 연결될것이며 관광사설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바다물경계 관광과 오수처리공장들도 새로 들어서게 된다. 이 나라는 올해 500만명의 외국인관광객을 받아들일려고 하고있다. 9월 상순에만도 구마를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 늘어났다고 한다.

에르도르에서는 내륙지대로부터 해안선을 따라 운행되는 흥년 장거리가 400km에 달하는 철도를 건설하여 바다관광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려고 하고있다. 캅파자는 수도 프노베와 유령의 남쪽으로 2개의 국제비행장용도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관광개발을 위한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심각한 대기오염』

인디아의 수도 뉴델리에서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 나라의 해당 기관은 22일부서 시인의 대기오염도가 급격히 높아져 25일현재 기준 수치를 훨씬 초과하였다고 앞으로 며칠동안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것이라고 예견했다고 우려를